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장학금 기탁

전남도는 12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에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인재육성 장학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전남도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명찬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성진 전남도회장과 서배설 수석부회장, 범희승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는 전문건설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회원사 권익증진 등에 힘쓰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인재육성 장학금 4500만원, 전국체전 성공 개최 기부금 2500만원, 사회복지시설 기부금 4700만원, 저소득 계층 난방비 지원 1400만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오지현 기자



광주여대, 2025년 상반기 교수 퇴임식 성료

광주여자대학교는 지난 11일 학교 도서관 2층 나눔라운지에서 2025년 상반기 교수 퇴임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이번에 퇴임하게 된 교수들은 황란희 교수(간호학과), 김일명 교수(초등특수교육과), 이재숙 교수(미용과학부), 정철운 교수(보건행정학과), 조정란 교수(보건행정학과), 조인숙 교수(간호학과) 6명이다.

이날 퇴임식에는 송강학원 오장원 이사장, 광주여대 이선재 총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보직자와 교직원, 학생 및 퇴임 교원의 가족들이 참석했다. 퇴임식은 1부 '회상하는 시간', 2부 '감사하는 시간', 3부 '작별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학교법인 송강학원 오장원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후학양성과 대학발전에 공헌한 퇴임 교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퇴임 후에도 빛나고 축복된 삶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광주 북부소방, 숙박업소 피난안전대책 추진

광주 북부소방은 북구 소재 대형 숙박업소 3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피난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겨울철 화재예방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책은 시설 이용객들의 화재발생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의식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2층 객실 내 간이완강기 시범설치', '휴대용 산소마스크 비치', '관계인 대상 완강기 사용법 교육', '맞춤 소방안전컨설팅 실시', '관계자 면담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임진택 북부소방 예방안전과장은 "50객실 이상의 대형 숙박업소는 화재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완강기 사용법 등 각종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윤준명 기자



광주교통공사, 서울 용산철도고 진로체험

광주교통공사는 최근 광주시 서구 마복동 본사와 동구 용산차량기지에서 도시철도 운전·관제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진로체험 행사를 펼쳤다. (사진)

12일 광주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국내 최초의 철도특성화 고등학교인 서울 용산철도고등학교 재학생 20여명이 참여했으며, 기지 내 검사와 견학, 안전설비 체험, 종합관제실의 열차 운영 통제 현장 등 다양한 실무 기술을 접했다.

특히 전동차 수동운전 체험으로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각종 장비를 직접 경험하며 미래의 직업 기초 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분야별 직원들과 활발한 질의응답을 통해 직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교통공사는 이번 체험으로 청소년들의 진로 계획에 도움을 주고, 지하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여 안전한 도시철도 이용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병하 기자



중흥그룹, '사랑의 헌혈 캠페인' 전개

중흥그룹은 지난 10일 중흥건설 본사 앞에서 임직원들이 동참하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헌혈 캠페인은 헌혈 수급난을 극복하기 위해 중흥그룹계열 중흥건설, 중흥토건 등 소속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사진)

중흥그룹은 지난 2022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헌혈 캠페인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씩 연2회 이상 진행하며 긴급수급이 필요할시 언제든지 동참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중흥건설을 비롯해 중흥그룹 계열사 임직원들도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중흥건설 소속 헌혈 참여자는 "현재 독감, 한파 등으로 헌혈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을 뉴스를 통해 봤다.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도움이 되고자 참여하게 됐다"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광주건설협회, 빚고을장학금 2000만원 기탁

(재)빚고을장학재단(이사장 강기정 광주시장)은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가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빚고을장학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사진)

이날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강기정 시장과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황인일·신경식·박창연 부회장, 최경열 감사, 김경군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기탁금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생계비와 교육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는 지난 2003년과 2023년 두 차례 장학사업을 후원했으며, 누적 기탁액은 1억2000만원이다.

강기정 시장은 "장학금은 학생과 청년들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사람을 키우는 일은 곧 희망을 키우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시립미술관,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 초청 특강

21일 오후 2시 대강당

광주시립미술관은 '신학철-시대의 몽타주' 전시와 연계해 유홍준(사진) 명지대 석좌교수 초청 특별강연을 오는 21일 오후 2시 시립미술관 대강당에서 연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신학철 예술의 두 세계: 한국근대사 시리즈와 농민미술'을 주제로 한 이번 강연에서 유 교수는 우리나라 근현대 시대상과 함께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중산층과 소시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그들의 삶을 표현한 신학철 작가의 예술작품을 조명한다.

이번 특강은 한국의 역사와 개인의 삶을 한 화면에 담아내며 시대적 통찰과 시대의 정서를 반영한 신학철 작가의 작품 세계, 그리고 삶의 진솔한 이야기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연자로 나서는 유 교수는 한국 미술사학자이자 교수이며, 제3대 문화재청장을 역임했다.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하고 홍익대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동양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미술평론으로 등단한 뒤 미술평론가로 활동했으며, 민족미술협회의 공동대표와 제1회 광주비엔날레 커미셔너 등을 역임했다.

특히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현재 20권)의 저자로 잘 알려진 그는 영남대학교 수 및 박물관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을 지냈으며,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로 정년퇴임한 뒤 현재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립미술관은 '신학철 시대의 몽타주' 전시를 오는 3월30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1, 2전시실에서 연다. 신학철 작가는 우리나라 민중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로, 포토몽타주 기법을 활용해 한국 근현대사와 동시대 현실을 심도있게 형상화했다. 이번 전시는 1960년대 실험미술부터 1980년대 민중미술운동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60여년간 이어진 신학철의 예술세계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병하 기자

죽어야 사는 노동자 이야기... 봉준호 '미키17'

봉준호 감독의 영화 '미키 17'이 스틸을 12일 공개했다. (사진)

'미키17'은 근미래를 배경으로 얼음 행성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파견된 인간 탐험대의 일회용 직원 '익스펜더블'의 이야기를 그린 SF물이다.

미국 작가 에드워드 애슈턴의 소설 '미키 7'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봉 감독이 '기생충' 이후 6년 만에 할리우드에서 만든 신작이다. 복제인간으로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한 사내를 주인공으로, 정체성에 대한 질문과 계급 간의 모순을 짚었다.

익스펜더블은 일종의 복제 인간이다. 익스펜더블이 된 '미키'는 17번 새롭게 프린트 되고, 17번째 미키가 죽은 줄 알고 프린트 된 18번째 미키와 17번째 미키가 만나게 된다.

할리우드 배우 로버트 패틴슨이 미키 17과 미키 18 역을 맡았다. 미키는 얼음행성에서의 인류 정착을 위해 위험한 임무에 투입된다.

나오미 애키는 미키의 연인 나샤를, 스티븐 연은 미키의 친구 티모를 각각 연기했다. 토니 콜렛은 일파 마셜, 마



크 러팔로는 케네스 마셜을 각각 맡았다.

미키의 파트너이자 얼음행성의 가장 용감하고 유능한 요원 나샤도 등장한다. 나샤는 미키가 1에서 18이 되는 모든 순간을 함께해 온 유일한 인물. 미키와 나샤가 함께 있는 다정한 모습은 로 맨스를 암시한다.

지구에서 미키와 함께 얼음행성으로 넘어온 절친 티모는 온갖 고초를 겪는 미키와 달리 얼음 행성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얻으며 생활한다.

얼음행성 개척단의 독재자 부부 일파 마셜과 케네스 마셜의 모습도 흥미를 끈다. 죽이 적적 맞는 부부는 허세 가득한 선동으로 추종자들을 이끌며 극의 긴장감과 웃음을 전한다.

오는 28일 한국에서 가장 먼저 개봉한다. 뉴시스

개리, 코쿤과 한솔밥... 두오버엔터와 전속계약

래퍼 개리(사진)가 새 동지를 찾았다.

소속사 두오버엔터테인먼트는 11일 "음악, 방송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아티스트 개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996년 혼성그룹 '스머프'로 데뷔한 개리는 힙합 그룹 '엑스틴', '히니패밀리'를 거쳐 2002년 래퍼 길과 함께 힙합 듀오 '리쌍'을 결성했다.

이후 '인생은 아름다워',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광대', '발레리노',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는 남자' 등 슬픈 히트곡을 냈다.

2015년 7월 싱글 '주마등'으로 팀 활



동을 중단한 그는 '또 하루', '고민', '태양', '퍼플 비키니' (Purple Bikini) 등 솔로곡을 발표했다.

방송으로는 6년 동안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에 출연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2017년 일반인 여성과의 결혼 소식을 전하며 하차한 그는 2020년 KBS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로 복귀해 아들 하오와의 일상을 공개했다.

뉴시스